

'광주 3·1 만세운동' 여성 독립운동가 함성, 예술로 피다

3·1운동 107주년 '결연한 기록들'展...내달 26일까지 이강하미술관

윤석남·류준화·김희상 참여...3·1만세운동길 역사현장 조명도

전시장에 들어서면 고요하면서도 결연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작품 곳곳에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기억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광주 3·1만세운동의 역사와 그 속에 남겨진 이들의 흔적을 예술로 되짚어보는 전시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강하미술관은 오는 4월26일까지 3·1만세운동 107주년을 맞아 기획전 '결연한 기록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광주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동시에, 그동안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는 1919년 광주에서 울려 퍼졌던 만세의 함성과 그 이후 이어진 기억의 흐름을 따라가며 역사적 문헌과 예술 작품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광주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만세운동 참여뿐 아니라 비밀결사 활동, 자금 조달, 정보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사실을 조명한다. 이들의 활동은 수감과 고문 등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이어졌지만 많은 경우 공식 기록에서 축소되거나 이



김희상작 '사람꽃' 연작

름 없이 남겨져 왔다. 전시에는 윤석남, 류준화, 김희상 세 작가가 참여해 서로 다른 조형 언어로 독립운동가들의 존재를 풀어낸다.

먼저 윤석남은 회화와 설치 작업을 통해 여성과 역사, 기억의 문제를 오랫동안 탐구해 온 작가다. 전시에선 침묵 속에 놓였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존재를 작품으로 다시 펼쳐 보인다.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여성 주체들을 조형적으로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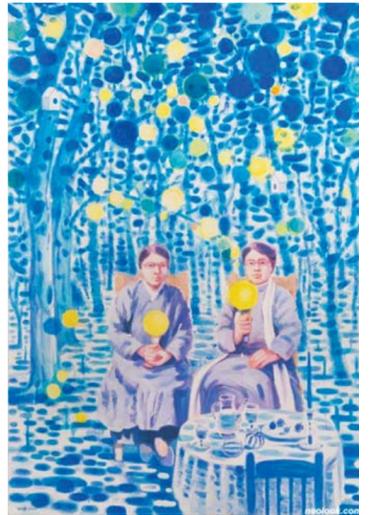
이강하미술관 '결연한 기록들' 전시 전경

리내며 기억의 장면을 현재로 소환한다. 류준화는 기록과 상상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역사적 인물의 존재 방식을 탐색해 온 작가다. 그는 과거 33인의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을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인 바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도 역사적 인물을 오늘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보게 한다. 작품 속 응원봉을 들고 있는 김마리아와 김순애의 모습은 역사적 인물을 현재의 시선과 연결하며 보다 친숙하게 다가온다.

조각가 김희상은 흙으로 빚은 인물 조각 연작

'사람 꽃'을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회로애락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인물 조각 72점이 놓여 있는데, 각각의 얼굴은 당시 민중이 품었던 감정과 의지를 떠올리게 한다. 인물들의 표정과 몸짓은 독립운동가들의 의지와 감정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전시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이강하미술관이 자리한 공간의 역사성이다. 미술관은 남구 광주 3·1만세운동길 위에 위치해 있어 장소 자체가 당시 역사를 증언한다.



류준화작 '김마리아와 김순애 그리고 응원봉'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은 "이번 전시는 광주 3·1만세운동의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자리이자,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결연한 기록들' 전시 개막 행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열린다. /최명진기자

김근태 화백 '아트패러', 동계 패럴림픽 빛낸다

♿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오는 18일까지 이태리 밀라노 'Ex Fornace'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창작을 세계 무대에 이끈 광주 출신 김근태 화백의 프로젝트 '아트패러'(ArtPara)가 밀라노 동계 패럴림픽 기간 국제 전시로 열린다.

♿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에 따르면 '아트패러 밀라노-코르티나 2026'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밀라노 문화플랫폼 'Ex Fornace'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동계올림픽 공식 문화 프로그램인 '문화올림픽아트'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돼 의미를 더했다. 장애 예술의 국제적 연대를 예술로 구현한 문화 프로젝트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전시에는 이탈리아·프랑스 등 전 세계 30개국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 예술가 142명이 참여한다.

개최국 이탈리아에서만 47명의 장애인 화가가 참가하며, 유럽의 장애인 예술 지원 단체인 '아트리에 A92', '아트리에 티콘제로' 소속 작가들

도 함께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에서도 발달장애 예술가 10명이 참여한다.

출품작으로는 이탈리아 발달장애 예술 공간 '아트리에 리베랄라르테' 작가 6인의 자화상, 다윤중후군 작가 켈리 웨슬렉의 '푸른 사각형 추상', 김현우 작가의 드로잉 '크로노스 낫 드로잉' 등이 소개된다.

아트패러는 광주 출신 김근태 화백이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창작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국제 전시 프로젝트다. 2017년 제네바 유엔 사무국 전시를 시작으로 2018년 평창과 파리 유네스코 본부, 2024년 파리 OECD 본부 등 세계 주요 무대에서 전시를 이어왔다.

김 화백은 1957년 광주에서 태어나 조선대 미대 재학 시절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교통사고로 시각과 청각에 장애를 갖게 된 그는 목포 고하도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며 발달장애인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고, 이들의



'아트리에 리베랄라르테' 발달장애 작가 6명이 그린 자화상

예술적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아트패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편 ♿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은 이번 문화올림픽아트 채택을 계기로 아트패러를 올림픽 개최지와 연계해 정례화할 계획이다.

/최명진기자

양갈로가 전하는 자연과 인간 공존 메시지

어린이음악극 '거인 양갈로'...14-15일, 21-22일 ACC 어린이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사장 김명규)은 오는 14-15일, 21-22일 ACC 어린이극장에서 어린이음악극 '거인 양갈로'를 선보인다.

어린이음악극 '거인 양갈로'는 필리핀 민간설화 '바닷물은 왜 짭까?'와 우리 전래 동화 '소금을 내는 뱀뱀'을 모티브로 창작된 춤추는 음악극이다.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소금을 둘러싼 사건과 거인 양갈로의 여정을 통해 우정과 나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무대는 음악과 몸짓,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출이 어우러진 형태로 구성된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 전개와 리듬감 있는 음악이 더해져 몰입도를 높인다.

제작은 창작국악그룹 '그림'이 맡았다. 이 단



어린이음악극 '거인 양갈로' 공연 모습.

체는 전통 음악에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결합해 온 팀으로, 어린이를 위한 음악극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공연은 토요일인 14일과 21일 오후 2시, 일요일인 15일과 22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열린다. 관람권은 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